

## 12·3 이후의 청각 정치학 - 광장의 소리와 이론의 탐색

임태훈\*

1. '소리'의 이론으로 광장을 읽기
2. 광장의 집합적 울림과 소닉 픽션
3. 소리 영토와 청각적 배치
4. 새로운 소닉 페르소나의 탄생
5. 청각 정치학의 지평에서 질문하기

### 국문초록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집회 공간의 음향적 실천을 청각 정치학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 시기 광장은 소리와 진동을 매개로 참여자들이 정치적 주체로 이행하는 정동적 결속의 장으로 기능했다. 이 연구는 합창, 구호, 함성 같은 음향 요소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화의 조건을 구성했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소리의 조직 방식, 정동의 작동 구조, 새로운 주체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머레이 세이퍼, 스티브 굿맨, 홀거 술체, 코두오 예순의 사운드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재구성했다. 선행 이론들을 한국의 구체적 맥락에 적용하여 12·3 사태 이후 시위 문화를 분석할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분석은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음향전(sonic warfare)', '청각적 배치(auditory assemblage)', '소닉 픽션(sonic fiction)', '소닉 페르소나(sonic persona)'의 다섯 가지 개념을 활용한다.

---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이 개념들은 집회 공간의 소리 환경이 어떻게 정동적 정치 실천의 조건으로 작동하는지 복합적으로 규명하는 틀을 제공한다.

권력과 시민의 긴장은 다층적인 음향전의 양상을 띠었다. 광장에서 형성된 집합적 울림은 개별 주체를 초월하는 정치적 현존을 구축했다. 참여자의 신체에 각인된 공유 리듬과 진동은 강렬한 연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 성취는 2016-2017년 촛불 집회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동적 참여와 발화 윤리를 창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가 권력은 경고 방송과 소음 규제 같은 청각적 배치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시도했다. 반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와 노래로 대항 배치를 형성하며 그 통제에 맞섰다.

(주제어: 청각 정치학, 12·3시태, 광장집회, 사운드스케이프, 음향전, 소닉 픽션, 소닉 페르소나, 청각적 배치, 정동, 집단적 주체성)

## 1. ‘소리’의 이론으로 광장을 읽기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은 태연하게 선포되었다. 45년 만의 군사 쿠데타였다. 이 사태의 충격은 시민들이 광장의 정치를 활짝 열어젖히는 역설로 작용했다.

사건 발생 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광화문과 국회 의사당 인근 공간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장소가 되었다. 참여자들이 외치는 구호와 노래는 거대한 음파와 진동이 되어 광장을 채웠다. 그 울림 속에서 흩어진 개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거듭났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 시기 집회 현장의 함성, 율동, 정치 풍자 개사곡은 기존 집회 문화와 새로운 양식이 결합한 복합적 현상이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의 형식을 계승하는 동시에, 동시대 기술과 문화적 감수성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시대

전환의 증표라고도 해석된다. 참여자들이 함께 외치고 노래하는 집단행위는 공동의 정치적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을 새로운 주체로 변화시키는 동력이었다.<sup>1)</sup>

12·3 이후 집회 문화에서 K팝을 전유하거나 응원봉을 활용하는 특징은 언론과 비평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현상 기술이나 정치적 해석에 머물러 있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이른바 사회 운동론이나 정치 분석만으로는 광장의 생생한 음향 환경, 그로부터 파생되는 감정 에너지, 참여자가 경험한 주체성의 복잡성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내란 이후 정치 지형 변화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은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세계> 합창이 연대감을 형성한 과정이나, 빛과 함성이 결합한 응원봉의 참여자 의미에 관한 탐구는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sup>2)</sup> 광장의 음향을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동력으로 분석하는 청각 정치학(sonic politics)의 전환적 시각을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3)</sup> 소리는 감각적 에너지로서 정치 질서의 물질적 표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sup>4)</sup>

1) 2025년 2월과 3월에 발간된 주요 인문사회 및 문예 매체들은 '12·3 내란'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그중 『문화/과학』은 '내란/광장정치'를 표제로 삼았다. 『문화동네』와 『문화과사회』 봄호가 12·3 이후 작가들의 체험적 일지를 특집으로 구성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 연구에서도 광장에서 체험한 감각적 실천의 기록을 '소닉 피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2)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원재, 「다시 만난 '화염병'과 '응원봉'의 세계: 이제 '문화 사회'를 준비하자!」, 『황해문화』 제126호, 새얼문화재단, 2025 및 권경률, 「다시 만난 세계」 폐창과 응원봉으로 바꾸는 세상: MZ가 발의하고 중장년이 가결하는 'K팝 민주주의」, 『월간중앙』 2025년 2월호, 중앙일보, 2025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이 글에서는 스티브 굿맨, 훌거 술체, 프레드 모튼, 더글라스 칸을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조너선 스탠(Jonathan Sterne), 브랜든 라벨(Brandon LaBelle) 등 사운드 스터디스 분야의 학자들도 소리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탐구하며 넓은 의미의 청각 정치학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4)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An Anthropology of Sound*, Bloomsbury Academic, 2018, pp.91-92.

이 연구는 12·3 이후 집회 현장의 ‘소리’를 분석할 새로운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이 틀은 머레이 셰이퍼의 ‘사운드스케이프’와 스티브 굿맨의 ‘음향전’ 개념을 기반으로 삼는다. 여기에 훌거 술츠가 발전시킨 ‘소닉 페르소나’와 ‘소닉 퍽션’ 개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광장과 청각 정치학의 다층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sup>5)</sup>

이 개념들은 사운드컬쳐 스터디 전공자가 아니라면 생경할 수 있으므로, 본론에 앞서 핵심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소리 연구의 방법론은 크게 네 계열로 나뉜다.

방법론	설명	적용과 초점
① 사운드워크 (Soundwalk)	환경 기반 집중 청취. (방식: 연구자 주도/참여형, 결합 활동: 인터뷰/관찰)	사운드스케이프의 사회·민족지학적 연구: 음향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경험의 이해.
② 사운드스케이프 민족지학 / 청각인식론 (Soundscape Ethnography / Acoustemology)	소리-장소-정체성-권력의 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심층 연구. (방법: 참여 관찰, 인터뷰, 녹음)	소리의 문화적 의미와 음향적 지식(청각인식론)에 대한 인류학적·민족음악학적 탐구.
③ 음향/심리음향 측정 (ISO 12913) (Acoustic/Psychoacoustic Measurement)	음향의 정량적·정성적 복합 평가. (정량: 음압, 라우드니스 등 / 정성: 쾌적함, 사건성 등)	표준화된 사운드스케이프 데이터 수집 및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ISO 12913). (주요 활용 분야: 도시 계획, 소음 제어, 환경 음향학)

5) 이 글에서 소개하는 저자들 중 국내에 정식 출간된 것은 머레이 셰이퍼의『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 한명호·오양기 역, 그물코, 2008과『소리교육 1』, 한명호 역, 그물코, 2015;『소리교육 2』, 한명호·박현구 역, 그물코, 2015뿐이다.

④ 공간 음향 분석 (HRTF 측정 및 모델링 포함) (Spatial Audio Analysis (incl. HRTF M&M))	개인별 HRTF 측정·모델링을 활용한 공간 음향 분석. (음원 위치 추정, 사운드 이미징 등 관련 기법 포함)	머리전달함수(HRTF): 음원에서 양쪽 귀까지 소리가 전달되며 겪는 음향적 변화를 정량화한 함수. VR/AR, 보청기, 몰입형 오디오 생성 등에 활용된다.
----------------------------------------------------------------------------	---------------------------------------------------------------	----------------------------------------------------------------------------------------

셰이퍼가 고안한 ①의 방법론은 사운드스케이프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데서 출발한다. 청음을 위한 현장 답사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방법론은 음향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사회학적, 민족지학적 연구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셰이퍼의 방법론은 이상적 소리 환경에 대한 환원주의적 입장 때문에 비판받았다.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사운드스케이프 민족지학, 소리의 인류학, 청각인식론, 비판적 듣기를 표방하는 철학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이 흐름은 소리와 인격, 미학, 역사, 이데올로기, 사회적 실천의 관계를 탐구하고, 소리와 듣기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소리 객체를 추상화하지 않고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념들 역시 이 계열에 속한다.

이 글에서 탐색하고 활용하는 이론과 방법론은 ①과 ②의 경계를 넘나든다. 셰이퍼는 인식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한 전범(典範)으로서 경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개할 핵심 개념인 ‘사운드스케이프’, ‘음향전’, ‘소닉 페르소나’, ‘소닉 픽션’, ‘청각적 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용어	설명	주요 저작
사운드스케이프 (Soundsc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특정 맥락을 가진 청각적 환경 전체.</li> <li>구성 요소: 키노트 사운드(배경), 신호음(전경), 표식음(상징).</li> <li>분류: 음향 명료도에 따른 하이파이(Hi-fi) / 로파이(Lo-fi).</li> </ul>	R. Murray Schafer,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1994)
음향전 (Sonic Warf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소리, 진동, 비음향(unsound)을 이용해 물리적·심리적·정동적 영향을 미치고, 권력 관계를 조절·구현하는 전략.</li> <li>사례: 군사·경찰의 음향 무기, 기업의 사운드 브랜딩, 특정 음악 문화 등.</li> <li>연관 개념: 진동의 정치학(Politics of Vibration).</li> </ul>	Steve Goodman, Sonic Warfare: Sound, Affect, and the Ecology of Fear(2010)
소닉 퍽션 (Sonic Fi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소리/음악으로 대안적 현실을 창조하는 생성적 실천 (코두오 에순 제시).</li> <li>작동 방식: 믹실로직(mixillogic), 미스사이언스(mythscience)를 통해 음악, 이미지, 텍스트 등 (뮤턴텍스처)으로 별현.</li> <li>기능 및 연관: 아프로퓨처리즘과 연관된다. 주체성을 생성하는 엔진이자 비판적 도구로 작동.</li> </ul>	Kodwo Eshun, More Brilliant Than The Sun: Adventures In Sonic Fiction(1998)  Holger Schulze, Sonic Fiction(2020).

소닉 페르소나 (Sonic Perso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특정 음향 환경(‘청각적 배치’)과 개인의 감각 경험(‘감각적 코르푸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유동적 정체성.</li> <li>영향 요인: 기술, 사회, 문화적 맥락 및 개인의 신체성, 역사, 감각적 특이성.</li> <li>매개: ‘소닉 흔적(sonic trace)’을 통해 형성되고 인식됨.</li> </ul>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An Anthropology of Sound(2018)
청각적 배치 (Auditory Assembl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의: 특정 공간이나 상황(집회, 공연 등)에서 의도된 효과를 위해 소리를 의식적으로 구성·배열하는 방식.</li> <li>고려 요소: 음원, 음향 특성, 스피커 위치, 청취자 동선 등.</li> <li>포괄 개념: 음향 디자인, 사운드스케이프 조율, 음향 시스템 운용 등.</li> </ul>	Schulze, Goodman, Schafer의 저작과 종합적으로 관련.

각 개념은 방대한 맥락을 포괄하므로, 여기서는 12·3 이후 광장의 상황과 직접 관련된 지점만 설명한다. 세이퍼는 ‘표식음(sound marks)’을 특정 공동체의 음향적 삶을 특징짓는 요소로 정의한다.<sup>6)</sup> 〈다시 만난 세계〉

6) “‘표식음’이라는 용어는 랜드마크(landmark)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 공동체 사람들이 특히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였던 특징을 가진 소리를 말한다. 어떤 소리가 한때 표식음으로 확립되면 그 소리는 보호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표식음은 그 공동체의 음향적인 생활을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머레이 세이퍼, 『사운드스케이프』, 한명호·오양호 역, 그물코, 2008, 25쪽.

합창은 12·3 국면의 대표적인 표식음이다. 반대 진영에서 울려 퍼진〈밟아 밟아〉 역시 대칭적 의미를 지닌다.

음향전의 맥락에서는 ‘진동의 정치학’ 개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sup>7)</sup> 12·3 이후 광장에는 서사로 포착할 수 있는 소리만 존재하지 않았다. 음향은 가청 주파수 영역을 넘어서며, 특히 초저주파나 초음파 같은 비가청음의 진동이 지닌 정치적 함의를 해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술체가 발전시킨 ‘소닉 픽션’은 문자 텍스트와 함께, 소리로 대안 현실을 창조하는 광범위한 실천과 상상력을 포괄한다. 이 글에서 분석에 활용한 광장 체험 기록들은 소닉 픽션의 구체적 사례다. ‘소닉 페르소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이 기록들은 도움을 준다. 소닉 페르소나는 ‘정각적 배치’라는 특정 환경과 개인의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특유의 정체성을 뜻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광장의 소리에 담긴 시대정신과 시민 주체성의 생성 동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첫째, 주요 집회 공간의 사운드스케이프 구성과 경험 방식을 분석한다. 둘째, 음향이 통제와 저항의 무기로서 경합하는 음향전의 양상을 탐구한다. 셋째, 광장의 소리가 참여자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변용시키는 기제를 고찰한다. 넷째, 집회 현장의 발화와 노래가 현실 비판과 미래 구성을 위한 소닉 픽션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진단한다.

---

7) Steve Goodman, *Sonic Warfare: Sound, Affect, and the Ecology of Fear*, MIT, 2010.  
p.18.

## 2. 광장의 집합적 울림과 소닉 퍽션

12·3 이후 광장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작업은 그 공간을 채웠던 소리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탐구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참여자들은 어떻게 개별 주체를 넘어 소리를 생성하고 감각하는가? 둘째, 강렬한 정치적 현존은 광장의 사운드스케이프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기록되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집회 군중을 개별 주체의 총합으로 보는 기준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 문화 이론가 프레드 모튼의 논의는 서구 사상에 깊이 뿌리내린 개체 중심주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겨눈다.

만약 현상학이 그것의 대상, 곧 현상학의 초월적 주체에 대한 내재적 비판(타락, 부식, 붕괴)을 위한 일련의 규약으로 부적절하게, 그리고 생성적으로 오해된다면 어떻게 될까? 해체는 이러한 오해, 즉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것의 지속적인 역사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우리가 이 개념을 확장하여 고유한 철학적 경계 밖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그리고 이 움직임의 역사성을 수행적 양태 이상이면서 동시에 그 이하인 어떤 것으로서 식별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되감긴 즉흥연주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조지 루이스가 ‘톤버스트(Toneburst)’라고 부르는 재귀적 서술의 어떤 측면을 소리 내어 표현할지도 모른다. 현상학은 현상학 자신을 옆에 두는 이 분출의 결에 존재한다. 솔로이스트는 하나이기를 거부한다. 단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는 이 동의는 현상학, 존재론, 정치학의 공동의 평정을 교란하여 혼란의 지점을 넘어서게 한다. 그 지점에서는 미학적 사회학의 윤곽이 그것의 해아릴 수 없는 배열을 기다리고 있다.<sup>8)</sup>

---

8) Fred Moten, *The Universal Machine*, Duke University Press, 2018. p.x. 밑줄은 인

그는 개인이기를 거부하고 함께 소리 내는 다성적 실천인 “단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는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관점에서 참여 시민은 고립된 원자가 아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고 공명하는 ‘앙상블(ensemble)’ 또는 거대한 ‘무리(swarm)’로 존재한다.<sup>9)</sup>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순간, 여의도 광장의 함성은 개별 목소리가 융합된 집합적 파동이었다. 『문학과사회』 봄호의 〈내란 일기〉 특집은 그날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증언한다. 김이설은 “다양하고 기발하고 귀여운 깃발들과 현란하고 어여쁜 야광봉들과 수많은 여성”<sup>10)</sup>으로 가득 찬 광장의 풍경을 묘사했다. 황정은은 가결 순간에 탄식과 안도가 교차하는 복합적 정서의 분출을 포착했다.

오늘 내 옆자리에 싸이커스를 응원한다는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응원봉을 소중하게 쥐고 쉴 새 없이 작은 간식을 먹고 있었다. 그들 말고도 2030 여성들이 오늘도 응원봉을 쥐고 모였다.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면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로 메아리가 돌아온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초반 몇 차례 집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되짚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분명 있는 것 같다. 집단에도 개인에도. 광장에 앉아 타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당산에서 여의도로 걸어서 넘어갈 때 둘째가 이 길을 안다고 반가워했다. 가수들을 쫓아다니던 십대 때, 그 길을 통해 공개방송을 보러 여의도로 넘어가곤 했단다. “날라리였을 때?” 셋째가 놀리자 응, 내가 날라리였을 때,

---

용자가 표시한 것이다.

9) Moten, 앞의 책, p.142. 일본의 물리학자 군지 폐기오 유키오는 스윙 인텔리전스 연구를 소개하면서 리더나 전체 설계 없이 단순한 국소적 상호작용만으로 복잡하고 지능적인 집단 행동이 창발하는 현상의 중요성을 주목한 바 있다. 군지 폐기오 유키오, 『무리는 생각한다』, 박철은 옮김, 글향아리, 2018, 76쪽 참고.

10) 김이설, 「2024년 12월, 2025년 1월의 메모」, 『문학과사회 하이픈』 봄호, 문학과지성사, 2025, 45쪽.

하고 폭소한다. 둘째의 뒤를 따라갔다. 요즘 광장에 모이는 102030 여성들과 둘째의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 그걸 생각하다가 눈물이 나서 천천히 걸었다.

300명 재석, 204명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 앞쪽에 앉은 사람들은 환호로 결과를 알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동동 뛰다가 뒷사람에게 덥석 안겼다. 내 또래 여성이었는데 힘이 좋았다. 두 발이 완전히 들린 채 그에게 안겨 있었다. 즐거웠다. ‘탄핵’에서 ‘체포’로 구호가 바로 바뀌었다. 뒤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뒤로 빠졌다. 다시 여의교를 건너 당산으로 갔다.

오후 7시 조금 넘어 대통령실에 탄핵안 의결서가 제출되었다. 대통령 권한 정지. 한시름 덜었다.<sup>11)</sup>

카페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김이설은 “결과가 나올 무렵에는 음악 소리도 작아졌다”다가 “가결 발표가 나자 그제야 음악 소리가 커지”는 음향의 변화를 경험했다. 일상의 사운드스케이프가 광장의 사건과 공명하는 순간의 기록이다.

카페의 손님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표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결과가 나올 무렵에는 음악 소리도 작아졌다. 가결 발표가 났다. 그제야 음악 소리가 커지고, 손님들은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거두고, 마주 앉은 상대와 눈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음료를 마셨다. 뭐랄까, 마치 연극 무대 같았다. 거짓말 같은 풍경이었지만 사실 정말 그랬다. 일상이 다 이상한 거짓말 같아진 12월 3일 이후부터 줄곧이다.<sup>12)</sup>

이러한 묘사들은 개별 목소리가 상호작용하여 거대한 파동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참여자는 익명의 군중을 넘어 음향으로 결속된 군집

11) 황정은, 「日記」, 『문학과사회 하이픈』 봄호, 문학과지성사, 2025, 188-189쪽.

12) 김이설, 앞의 글, 48쪽.

적 신체로 변모한다. 나희덕 시인의 표현처럼, 공통의 목소리는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힘을 갖는다. “오래 잠들어 있던 여의도는 목소리들에 의해 깨어났다. 공원은 다시 광장이 되었다.”<sup>13)</sup> 이 힘의 발현은 개별화된 주체를 초월하며, 공유된 감응 속에서 공동의 감각을 생성한다.

이 기록을 훌거 술체가 정리한 ‘소닉 핵션’으로 인식하려는 이유는 소리와 정동, 정치가 맷는 관계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비평가와 예술가에게 대안적 미래를 사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술체에 따르면, 모든 청음록(聽音錄)이 ‘소닉 핵션’의 함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의 기여는 사운드를 통해 지배 담론에 개입하고 대안적 사유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구체적인 역사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한국 사회는 격렬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나왔다. ‘광장’으로 대표되는 정치 공간의 의미 역시 각별하다. 모든 격변의 과정은 억압과 저항의 순간을 담은 방대한 서사와 기록 작업을 수반했다. 그래서 투쟁 구호, 집회의 함성, 노래와 같은 소리 기록을 ‘소닉 핵션’으로 재인식 할 필요가 각별하다. 이러한 시도는 지배 질서에 맞서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고 구축하려 했던 청각적 실천을 재조명하는 연구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

소닉 핵션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주로 아프로rocessing 외부의 전통, 실천, 해석을 장악한다는 점이다. 소닉 핵션의 이러한 다산적이고, 바이러스적이며, 전염성 있고, 동화적인 특성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힘으로 만든다. 또한 다르게 만들어진 새로운 소닉, 운동 감각적, 그리고 감각적 핵션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sup>14)</sup>

---

13) 나희덕, 「광장의 재발견」,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9쪽.

코두오 에순(Kodwo Eshun)이 처음 제시한 ‘소닉 퍽션’은 퍽션의 영토를 문자 텍스트 밖으로 과감히 확장하는 개념이다. 나아가 이 개념은 소리를 매개로 현실에 개입하고 대안적 세계를 구축하는 모든 문화적 창작물을 퍽션으로 재정의한다.

소닉 퍽션은 가사를 가능성의 공간으로, 감옥에서 벗어날 계획으로 대체 한다. 현실 도피주의는 그것이 인식의 수단을 장악하고 감각적 현실의 양식을 증식시킬 때까지 조직된다. 바로 그 이유로 당신은 현실 도피주의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조롱하는 프로듀서, DJ, 저널리스트들을 향해 언제나 비웃어야 한다. ‘리얼함’을 지키려 애쓰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가정들은 당신의 날개를 자르려 한다. 당신의 갈라진 꼬리를 나무에 묶으려 한다. 또한 썩어가는 전통의 잔해와 물려받은 관습의 어리석음, 당신 자신의 무거운 짐에 수갑을 채우려 한다. 상식은 당신을 ‘현실’이라고 불리는 창살 뒤에 가두기를 원한다.<sup>15)</sup>

“탄핵 탄핵 윤석열 탄핵!” 등의 반복 구호,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그리고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함성은 개별 목소리로는 불가능한 음압과 정동적 힘을 분출한다. 결집된 음향의 파동은 공간을 점유하고, 문자화될 수 있는 것의 의미 이상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실천이 된다.

프레드 모튼의 표현처럼, 집회의 발성은 정제되지 않은 생생함 속에서 고유한 에너지와 실재감을 획득한다. “무-사물들(no-things)의 사회적 삶은 평범한 노래(plain song) 속에서 부딪치고, 쿵쿵거리고, 신음한다.”<sup>16)</sup> 광장의 발화는 정치적 의견 전달을 넘어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강렬한 존

14) Holger Schulze, *The Sonic Fiction*, Bloomsbury Academic, 2020, p.4.

15) Kodwo Eshun, *More Brilliant Than The Sun: Adventures In Sonic Fiction*, Quartet Books, 1998, p.103.

16) Fred Moten, 앞의 책, 2018, p.ix.

재 증명이 된다. 동시에 공간의 지배 질서에 도전하는 청각적 선언으로 가능하다. 국회 앞 철야 농성에서 이어진 노랫소리와 구호는 물리적 점거를 대체하는 실천이었다. 그 소리는 특정 공간을 시민의 청각적 주권 아래 두었다. 그리하여 광장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참여자의 현존을 드러내고 정치적 의미를 생성하는 무대로 변모했다.

12·3 이후의 사운드스케이프는 2016-2017년 촛불 집회와 정동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6년 집회가 점차 축제 분위기를 띤 반면, 2024-2025년 집회는 내란 사태에 대한 울분과 민주주의 수호의 절박함이 강하게 반영된 음향 환경을 구성했다.<sup>17)</sup> 이곳은 “국가로부터, 혹은 국가를 침침하는 자들로부터 배신당한 자”<sup>18)</sup>들이 서로를 조우하는 공간이었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언어 질서를 의심하고 주변화된 관점에서 세계를 재해석하는 지평에 들어섰다.

K팝 뮤직비디오 등 유희적 요소가 결합되었으나, 2016년과는 다른 긴장감과 결연함이 기저에 존재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국민’이라는 단일 기표로 수렴되려 했다면, 2025년 광장에서는 퀴어 등 다양한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발언했다.<sup>19)</sup> 타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환대의 발언을 통해 새로운 시민 주체성이 등장했음을 기억해야 한다.<sup>20)</sup>

17) 2016-17년 국면의 촛불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이동연, 「촛불의 리듬, 광장의 문화역동 :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1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손호철,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반복과 차이」, 『현대정치연구』 제10권 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천정환, 「누가 촛불을 들고 어떻게 싸웠나 - 2016/17년 촛불항쟁의 문화정치와 비폭력·평화의 문제」, 『역사비평』 제118호, 역사문제연구소, 2017; 신진우,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의 진자 운동, 1987-2017 : 포스트권위주의와 문제의 동시성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제3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18) 정원옥·전주희·정정훈·조윤희, 「12·3 내란 이후 광장정치의 부상하는 주체와 그 함의」,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1쪽.

19) 정성조, 「퀴어 민주주의를 위하여」,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64쪽.

집단적 구호와 노래는 성대를 울리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등 직접적인 신체 반응을 유발한다. 주변 사람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물리적 진동은 피부와 온몸으로 감각된다.<sup>21)</sup> 사라 아메드의 ‘인상(impression)’ 개념은 이 경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신체 감각, 감정, 사유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경험되는 광장의 소리는, 정보 전달을 넘어 신체에 작용하는 물리적 에너지로 체감된다.<sup>22)</sup> 목소리를 합쳐 노래하고 구호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호흡과 심장 박동은 점차 하나의 리듬을 이룬다. 소리의 물리적 진동이 신체에 각인되면서, 개인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강렬한 소속감을 체감하게 된다.<sup>23)</sup>

K팝 팬덤 문화의 상징인 응원봉과 폐창은 광장에서 정치적 저항의 언어로 재탄생했다. 참여자들은 선율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빛의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수동적 관객이 아닌 역사의 무대를 함께 창조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 은박 깔개 위 응원봉, 소시지, 감자튀김이 놓인 풍경은 내란의 겨울이 던진 불안과 그에 맞선 연대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다. 물질과 감각의 배열은 흩어진 감정을 응고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체감하게 하는 정동의 응축 장소로 탈바꿈했다.<sup>24)</sup>

20) 권창규, 「무지개 색깔 동지들의 기억 투쟁」,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41쪽.

21) 귀나 입이라는 특정 기관의 작용이 아니라, 전체 감각 기관, 모든 근육 움직임, 전체 자세, 완전한 고유 수용성 감각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신체 활동을 의미한다. 술체는 ‘감각적 코르푸스(sensory corpus)’라는 개념을 통해 소닉 페르소나를 연구하는 이의 신체, 경험, 기술이 연구 과정 자체의 근본적인 토대가 됨을 설명한다.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p.113.

22) 사라 아메드, 『감정의 문화정치』, 시우 옮김, 오월의봄, 2023, 34쪽.

23)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전쟁 기계(war machine)’ 개념과 연결된다. 음향전은 소리와 진동이 물리적 신체와 사회적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감각적 잠재력으로 기능하는 정치적 기술이다. Steve Goodman, *Sonic Warfare*, p.11, p.117에서 참조.

24) 모순택, 「달그립자 쫓는 느낌」,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43쪽. 참고

이 과정은 참여자 개개인의 신체를 집단적 리듬에 동기화시키는 중요한 단계였다. 발성은 구체적인 신체를 통해 발현된다. 소리는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라, 피부를 떨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물리적 에너지로 작동한다.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산하고 공유하는 음향 에너지는 개개인을 분리하는 벽을 허물고, 공동의 운명을 지닌 ‘우리’라는 새로운 정치적 신체를 조각한다.<sup>25)</sup>

### 3. 소리 영토와 청각적 배치

광장의 울림은 단선적이지 않다. 집회 현장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를 매개로 여러 정치적 의지가 경합하는 ‘소리 영토(acoustic territories)’를 구성한다. 이 개념은 브랜던 라벨(brandon laBelle)의 저서 『Acoustic Territories: Sound Culture and Everyday Life』(2019)에서 제안되었고, ‘음향전’과 ‘청각적 배치’를 이해하는 참조점이기도 하다.

지하에서부터 가정과 거리의 삶, 그리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특정 영토들을  
가로지르면서, 나는 가청성(audibility)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과 상호작용  
의 문제로서 그러한 영토들의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특성들을 다룬  
다. 따라서 영토화(territorialization)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

로 ‘모순택’은 사진작가 노순택의 필명이다. 소설가 서고운도 비슷한 기억을 글로 옮겼다. “우리는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농성장에서 김밥과 어묵으로, 핫팩과 응원봉으로, 노래와 몸짓으로, 무지개와 은박지로 채워온 이 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고운,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문학동네』 제122호, 문학동네, 2025, 19쪽.

25) Douglas Kahn and William R. Macauley, “On the Aelectrosonic and Transperception”, *Journal of Sonic Studies* 8, 2014. <https://bulky.kr/8IvlynF>

는 음향적 조율(구성적)과 탈조율(파괴적)의 과정으로 강조되며, 이는 일상의 특정한 흐름과 형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sup>26)</sup>

이 장에서는 소리가 공간을 점유하고 의미 투쟁의 장이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나아가 국가 권력의 ‘청각적 배치’와 시민들의 ‘대항 배치’가 충돌하여 ‘음향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탐구한다.

집회 참여자들은 함성과 구호, 노래로 목소리를 확산시켜 청각적 공간을 점유한다. 이 행위는 공적 공간의 지배적 질서에 도전하는 영토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광화문 광장, 국회의사당, 한남동 대통령 관사 인근처럼 국가 권력의 상징적 공간에서 소리 영토 전쟁은 전개되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여의도에서는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상반된 구호와 음악이 뒤섞였고, 서로를 압도하려는 극심한 음향적 경합이 벌어졌다. 이 대결은 목소리 크기 경쟁 이상으로 치열했다. 극우 유튜버의 선동, 사법부 공격, 내전 위협이 뒤섞여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양상으로 번졌다. 이후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는 내전적 갈등의 서막이었다.

시위대의 함성은 점유한 공간을 ‘민의의 광장’으로 변모시키는 선언이었다. 동시에 이 장소를 염원에 맞게 변형하려는 소닉 픽션(sonic fiction)의 실천이기도 했다.<sup>27)</sup> 누가 더 효과적으로 소리 영토를 지배하는지가 현장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핵심 지표다. 국가 권력은 경찰력과 기술 장비

26) Brandon LaBelle, *Acoustic Territories: Sound Culture and Everyday Life*, Bloomsbury Academic, 2019, pp.6-7.

27) 술체는 소닉 픽션을 고정된 정의를 거부하고, 사용과 적용을 통해 그 의미가 확장되는 ‘사유 합성기(thought synthesizer)’이자 ‘주체성 엔진(subjectivity engine)’으로 묘사한다. Holger Schulze, *The Sonic Fiction*, Bloomsbury Academic, 2020, pp.6-7.

로 소리를 통제하려 했다. 반면 시민 집단 내부에서도 소수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친 활동가의 발언이 비아냥에 묻힌 사례는 소리 영토와 내부 권력의 복잡성을 보여준다.<sup>28)</sup>

음향 환경으로 감각을 설계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을 포착하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각적 배치(auditory assemblage)’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것은 아비투스, 실천, 기술, 기반 시설, 그리고 소리내기와 듣기에 대한 특정 지식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세이퍼의 ‘음향 환경 디자인과 조율’, 스티브 굿맨의 ‘음향 시스템 운용’, 술체의 ‘청각 장치’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구성한 개념임을 밝힌다. 서로 다른 맥락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질적 사유를 교차시켜, 소리가 기술, 권력, 신체와 결합하여 특정 주체와 정동적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을 해명하는 분석틀을 마련한다. 이 어지는 인용문들은 통제와 저항의 힘이 교차하는 장에 대한 각 이론가의 관점을 보여준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이다. 이것은 사운드스케이프의 구성요소인 여러 가지 음사상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느 상황의 장에서, 소리와 소리가(또는 소리와 사람이) 서로 영향이나 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각각의 소리를 잘게 썰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무한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약말로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자 앞에 펼쳐지는 중요한 주제인 것이다.<sup>29)</sup>

건축과 법 집행 사이의 경계가 계속해서 침식되는 과정 속에서, 통제의 음향 건축(sonic architecture of control) 또한 나타나고 있다. 확성기들

---

28) 모순택, 앞의 글, 22쪽.

29) 머레이 세이퍼, 『사운드스케이프』, 208-209쪽.

은 침입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으며 당국이 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더 나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새로운 오피스 타워들의 감각 시스템은 이미 판옵티콘 시각, 후각, 온도 및 습도 감지, 동작 감지,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청각 까지 포함하고 있다.<sup>30)</sup>

이 사랑스러운 소리는 그것들을 비판하거나 질문하려는 주된 충동을 근절시킨다. 청각 장치(auditory dispositive)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단 몇 마이크로초 지속되는 시스템 소리를 누가 감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감각학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 통제 메커니즘은 의문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취약점들은 숨겨지고 억압된다.<sup>31)</sup>

국가 권력은 확성기, 방송 차량, 차벽을 동원하여 광장의 소리 환경을 통제하는 청각적 배치를 구축했다. 한남동 관사 앞을 가로막은 차벽 위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진 경고 방송은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행위는 집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음향전의 일환으로 구사되었다.

목표는 가급적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실제 공격만큼이나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인들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순전히 음향 효과에 의해 유발된 공포, 또는 실제 공격인지 음향 공격인지分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발된 공포는 가상화된 공포이다. 위협은 그것을 뒷받침할 필요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한다. 그럼에도 소리에 의해 유발된 공포는 결코 덜 실재적이지 않다.<sup>32)</sup>

---

30) Steve Goodman, *Sonic Warfare*, p.64.

31)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p.214.

국가 권력이 소음 기준치를 명분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고 방송을 반복한 것은, 스티브 굿맨이 말한 ‘공포의 생태학’을 구축하려는 음향 전략이었다. 통제적 음향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무조건적 복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의 함성은 억압적 질서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 시민들은 억압적 음향에 맞서, 일상의 문화적 실천을 저항의 자원으로 바꾸는 대항 배치를 조직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탄핵 집회 현장에 울려 퍼진 순간이 그 상징적 장면이다. 이 노래의 선율은 경찰의 기계적인 경고 방송이 유발하는 공포를 무력화하고, 참여자들을 다른 정동의 세계로 이끌었다. 노래는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서사를 담은 강력한 ‘소닉 팩션’으로 작동하며 저항의 연대를 확산시켰다. 나아가 응원봉의 불빛 속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육체적 경험은, 개개인에게 자신이 역사의 변화를 이끄는 힘 있는 주체라는 확신과 강렬한 공동체적 소속감을 안겨주었다. 이 경험은 술체가 암시한 ‘저항하는 청각 주체(persona resista)’의 형성을 촉진한다.

개인의 저항 행위는 저항 페르소나(persona resista)를 생성한다. 저항 페르소나는 자기표현이 다듬어지거나 고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요청과 활동, 의심과 모호함, 순간과 성찰에 반응하는 민감한 페르소나이다. 저항 페르소나는 클라우스 테벨라이트가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의 황폐해진 남성들에게서 발견한 군사화된 신체와 닮지 않는다. 완벽한 질서와 깨끗하고 대칭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환상은 결국 깊이 불안정한 휴머노이드

---

32) Goodman, 앞의 책, p.xiv. 이 책에서 스티브 굿맨이 설명하는 ‘공포의 생태학 (ecology of fear)’은 소리나 진동(특히 초저주파와 같은 비가청음 포함)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환경 전체에 공포, 불안, 위협과 같은 정동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전략 또는 그 결과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의 두려운 증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군사화되고 완벽해진 신체는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신체이다. 완벽함과 최적화된 전투 활동이 깊은 도덕주의적 흥분과 함께 요구되는 순간은 비즈니스나 경영 컨설팅에서, 음악 또는 비음악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에서, 또는 어떠한 교육 시설에서라도 발견된다.<sup>33)</sup>

광장에서 분출하는 폐창과 함성은 깔끔하게 프로듀싱된 녹음된 소리와 다르다. 똑같이 반복되도록 다듬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몸에서 울려 나오는 에너지이자, 신체를 통해 집단적 연대를 구현하는 실천이다.

국가 권력의 통제적 음향과 시민들의 창의적 저항이 맞부딪치면서, 광장은 단순히 소리 크기를 겨루는 곳이 아닌 ‘음향전’의 전장으로 변모했다. 이 전쟁은 소리를 매개로 상대의 심리를 압박하고 정동을 조율하며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힘들이 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국가 권력은 LRAD(장거리 음향 장치) 같은 전문 음향 무기나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동원해 청각적 공격을 가할 잠재력을 지녔다.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합창과 구호를 통해 자신들의 소리 영토를 방어하며 집단적 에너지를 유지했다.

탄핵 반대 집회의 극우 세력은 이 대치 구도에 또 다른 차원의 음향 폭력을 더했다. 이들은 고출력 확성기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괴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소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음향 공간을 점유하려 했다.<sup>34)</sup> 이들의 행위는 공론장의 규범과 공통의 감각 기반을 파괴하려는 ‘언어의 내란’<sup>35)</sup>에 가깝다.

---

33)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p.208.

34) 스티브 굿맨은 경합하는 음향전에서 진동의 힘과 권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주파수의 정치(politics of frequenc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Goodman, 앞의 책, pp.19-20.

흘거 술체가 제안한 ‘초미시정치’와 ‘감각 비평’의 관점은 소리의 미시적 권력 작용에 주목하게 한다.<sup>36)</sup> 특정 음색, 리듬, 스피커 방향, 공간의 울림 같은 미세한 요소가 참여자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각 정치학의 복합적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탄핵 반대 집단의 정동과 소닉 페르소나 역시 미시정치적 관점에서 해독이 필요하다. 개인의 감각 경험 수준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특정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천정환의 분석에 따르면, 문화정치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일련의 정동 덩어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동과 주체화는 거리정치의 맥락에서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거리정치는 집회와 시위의 양식적 측면을 통해 주체성이 형성되고 전파되며 상호 작용하는 장이다.<sup>37)</sup>

법적 기준을 의도적으로 넘는 압도적 음량은 물리적,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하는 행위였다. 이를 통해 음향적 영토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군가와 찬송가 같은 특정 음악이 반복적으로 선택되었다.<sup>38)</sup> 군가는 투쟁 의지를 고취

35) 최성용, 「여순에서 남태령까지, 손가락총의 폭력을 넘어」,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87-188쪽.

36) ‘나노폴리틱스’는 국가운영, 정당 정치, 주요 제도 등 거시적인 차원의 정치(macropolitics)나 지역 조직, 기업, 협회 등 중간 수준의 정치(micropolitics)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개개인의 감각적 경험, 습관, 정동(affect), 신체적 반응 등 매우 미시적인 수준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주체를 형성하며, 또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한다. 술체는 현대 사회의 권력이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터치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 미디어 콘텐츠, 소비문화 속의 ‘감각적 유혹(weaponized adorables)’, 미세한 소리 환경의 조작 등을 통해 우리의 감각과 습관, 욕망의 차원에 직접 개입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술체가 제안하는 방법론이 ‘감각 비평(Sensory critique)’이다.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pp.164-167 참고.

37) 천정환, 「거리정치를 통해 본 내란 이후 ‘극우화’의 문화정치적 자원과 정동적 동력」, 『역사비평』 제151호, 역사비평사, 2025, 141-142쪽.

38) “음향 무기의 군사적 배치는 교란의 격동적인 영역에 대한 음향적 개입일 뿐만 아니라, 자극 또는 정동적 투사체로서 리듬적 요소를 삽입하는 역동적인 행위이다.” Goodman,

했고, 찬송가는 공유된 신념에 기반한 연대를 강화했다. ‘멸공’이나 ‘종북척결’ 같은 적대적 구호의 반복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례였다.<sup>39)</sup> 동시에 적대 대상을 향한 분노와 혐오를 증폭시키는 기제로 가능했다.

폐쇄적 음향 환경은 참여자의 외부 소통을 차단하고 내부 논리를 강화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탄압받는 애국자’나 ‘체제 수호의 보루’로 인식하게 되었다.<sup>40)</sup> 공유된 적대감과 종교적 열정은 외부 현실을 배제하고 내부 확신만을 공고히 하는 정동적 밀실을 구축한다. 그 결과 자기 인식은 폐쇄적 완고함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소닉 페르소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시각적 과시와 결합했다. 광장의 물리적 소리 영토 안에서 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효과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타 집단과의 공감대를 차단하고 정서적 거리를 극단화함으로써, 이 집단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 4. 새로운 소닉 페르소나의 탄생

12·3 이후 집회 현장의 청각 정치학은 권력과 저항의 충돌을 넘어, 새로운 의미와 주체성을 생성한다.<sup>41)</sup> 이 장에서는 현장의 즉흥성과 도주성이

---

앞의 책, p.112.

39) 천정환, 앞의 글, 144, 146쪽 참고.

40) 현대 정치에서 분노, 불안, 혐오 같은 부정적 감정이 공공연히 표출되고 집단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면, 이 감정의 당사자는 타인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 당사자는 스스로를, 상대방의 특정 행동 때문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로 여기게 된다.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023, 43-44쪽.

41) 술체는 ‘소닉 페르소나’ 개념을 설명하며, 소리와의 만남과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주체’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 방식과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형성된 ‘특이성 혼합체(idiosyncratic implex)’를 지니며, 이

소리 환경을 재편하는 과정과 소리가 대안적 현실을 구축하는 ‘소닉 퍽션’으로 기능하는 방식, 그리고 두 과정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소닉 페르소나’를 탄생시키는 기제를 단계별로 분석한다.

광장의 사운드스케이프는 현장의 우발성과 참여자들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모한다. 프레드 모튼이 제시한 ‘즉흥성(improvisation)’ 개념은, 정해진 각본 없이 감응과 반응이 맞물리는 사운드 정치의 원리를 설명한다.<sup>42)</sup>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경찰은 차 빼!” 같은 구호가 즉석에서 생성되어 확산되는 현상이 그 사례다. 한 참가자의 “다 같이 앉읍시다!”라는 외침이 집단 전체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장면 역시 즉흥성의 힘을 보여준다. 이처럼 각본 없이 터져 나오는 즉흥적 구호와 행동은, 그 자체로 현실에 맞서는 대안적 서사를 실시간으로 써내려가는 ‘소닉 퍽션’의 한 형태가 된다.

광장의 정치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 행진과 장소 이동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프레드 모튼의 ‘도주성(fugitivity)’ 개념은 고정된 영토를 벗어나 유동하는 집단행동의 동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sup>43)</sup> 군중의 행렬이 이동할 때, 함성의 울림은 도시의 지형과 상호작용하며 시시각각 변모했다. 경찰 통제선을 피해 골목으로 접어들 때의 고조되는 긴장감처럼, 움직이는 신체 위에서 재편되는 음향 환경은 참여자의 ‘소닉 페르소나’를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과정이었다.

농민과 청년의 연대가 길을 열어낸 ‘남태령 대첩’은 이러한 도주성이 어떻게 해방적 공간 체험을 창출하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소설가 김홍이

---

것이 소닉 페르소나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p.185.

42) Fred Moten, 앞의 책, pp.154-155.

43) 위의 책, p.44.

남긴 “남태령을 지키고, 길을 내고, 나아간 사람들을 본 것이 이 계절의 유일한 희망이다.”<sup>44)</sup>라는 문장은 그날의 집단적 이동이 품고 있던 희망의 무게를 증언한다.

12·3 이후 한국 광장에서 나타난 즉흥성과 유동성은 2019년 홍콩의 ‘Be Water’ 전략을 연상시킨다. 홍콩 시위대가 즉흥적인 음향 전술로 국가의 예측과 통제를 무력화했듯, 한국의 참여자들 역시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유동적 경로 설정으로 규격화된 진압 시도에 맞섰다. 두 사례 모두, 사전 계획 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분산적 저항이 어떻게 국가의 통제망에 균열을 내는지 보여준다.

홍콩 시위대가 보여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주성’ 전술이 한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재현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저항의 에너지를 분출시킨 한국의 방식은, 중앙의 통제 논리를 교란하고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공간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회 현장의 소리는 저항을 넘어 대안적 미래를 향한 열망을 담아내는 ‘소닉 픽션’으로 작동한다. 훌거 술체는 소닉 픽션을, 소리로 대안 현실을 구축하는 생성적 실천으로 정의한다.<sup>45)</sup>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나 〈헌법 제1조〉 합창은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라는 미래상을 감각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였다. 그 노래들은 제주 4·3, 5·18 광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는 염원을 담아냈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탄핵 플레이리스트’는 참여자들이 수동적 소비자를 넘어 능동적 창작자였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특정 곡을 선별하고 재맥락화하여 고유한 정치적 서사를 창조했다. 대중음악 선율에 새로운 가

---

44) 김홍, 「지난 계절의 일기」, 『문학동네』 제122호, 문학동네, 2025, 542쪽.

45) Holger Schulze, 앞의 책, 2020, p.185.

사를 불인 개사곡 역시 현실 비판을 넘어 원하는 사회상을 구현하는 소닉 픽션의 실천이었다. 그런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스스로를 구성했다.

저녁엔 신간을 전하기 위해 안국역 부근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 시청 역 쪽에서 시위가 있음을 알아서 마음이 불편했다.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에 게 빛을 지는 기분. 친구에게 이 말을 했는데, 친구는 시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했다. 자신도 생각이 있으니 내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공격적이었나. 방어적인 친구의 말이 귓등으로 흘러갔다. 우리가 왜 이렇게 친해졌지? 기억을 더듬어보며 돌아왔다. (... 중략 ...) 목요일에 만난 친구에게 그토록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났던 이유는 그에게서 나를 봤기 때문이었다. 다음 주엔 시위를 갈 것이다. 시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내가 달라진다.<sup>46)</sup>

소설가 김복희의 “시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내가 달라진다”라는 말은 광장에서의 주체화 과정을 요약한다.

흘거 술체가 제시한 ‘소닉 페르소나’는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소리와의 만남 속에서 형성되는 유동적 주체성을 지칭한다. “처음 본 청년에게” 위로를 건네는 어른의 모습<sup>47)</sup>, “전자 촛불을 든 한 남자”와의 우연한 동행<sup>48)</sup>, 남태령의 시민 연대는 모두 비조직적 개인들이 현장에서 형성한 정동적 연결을 보여준다.

밀도 높은 집회의 음향 환경은 참여자의 감각을 재편한다. 참여자들은 추위를 견디며 구호를 외치고, 옆 사람과 노래를 따라 부르며 거대한 함성

46) 김복희, 앞의 글, 31-32쪽.

47) 김이설, 앞의 글, 46쪽

48) 김멜라, 「계엄파편」, 『문학과사회 하이픈』 봄호, 문학과지성사, 2025, 22쪽.

의 일부가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흔들리고, ‘나’를 넘어선 ‘우리’라는 연대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술체가 강조하는 ‘생성성(generativity)’ 개념은 주체 형성의 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sup>49)</sup> 소리 경험은 새로운 슬로건과 노래, 린(meme), 소통 방식을 파생한다. 또한 집회 이후에도 지속되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관계로 이어진다. 현장의 구호가 온라인으로 확산되어 지속적 저항의 상징으로 기능하는 현상이 소리의 생성성을 입증한다. ‘말벌’로 불리는 비조직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대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새로운 집회 문화를 창출했다. 그 모습은 기존의 조직 중심 운동과 구별되는 관계망의 구축을 예고한다.

광장에서 태동한 새로운 연대의 감각은 광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비조직적 개인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은 노동조합이나 농민회의 투쟁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들의 결합은 지시나 계몽이 아닌, 함께 싸우는 ‘동지’로서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했다.<sup>50)</sup> 이 수평적 연대는 점차 분단 체제, 안보 담론, 극우의 혐오 정치와 같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맞서는 실천으로 그 지평을 넓혔다.

스마트폰과 SNS는 이 모든 과정을 증폭하고 확산시키는 결정적 매개체였다. 더글러스 칸의 지적처럼,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현장의 음향 에너지를 온라인 공간으로 실어 날라 재매개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조직하는 동력으로 기능했다.<sup>51)</sup> 결국 광장의 체험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 전체가 시대의 과제에 응답하는 새

49)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2018, p.231.

50) 정고은, 「‘휑결’과 ‘말벌’: 초대장에 응답·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28쪽.

51) Douglas Kahn and William R. Macauley, “On the Aelectrosonic and Transperception”, *Journal of Sonic Studies* 8, 2014.

로운 주체를 벼려냈다.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체화한 ‘소닉 페르소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광장의 물리적 충돌은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지털 공간의 ‘음향전’으로 즉각 전이되고 증폭되었다. 이들의 방송은 현장을 중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구독자를 직접 선동하여 탄핵 반대와 내란 응호라는 특정 정치 담론을 조직하는 적극적인 선전 활동이었다.<sup>52)</sup>

현장의 함성과 특정 음악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은 지지자들에게는 강렬한 동질감과 현장감을 부여했다. 동시에 반대자들에게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음향 환경을 구축하는 이중의 효과를 낳았다. 결국 이들의 실시간 방송은 물리적 공간의 소리 영토를 점유하려는 시도를 디지털 담론의 장으로 확장하려는 계산된 전략으로 읽어야 한다.

자극적인 편집과 효과음, ‘종북척결’ 같은 정치 프레임의 반복 역시 술체가 말한 소리를 통한 현실 재구성의 실천이다.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 전개되는 ‘디지털 음향전’의 수행 방식이기도 하다.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선다. 시청자의 분노와 불안을 증폭시켜 디지털 환경에 공포의 생태학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선명하다. 폭력적 선동과 시청자의 후원 응답은 소리가 집단적 정서를 조작하고 결집을 유도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sup>53)</sup> 특정 메시지와 감정이 다른 목소리를 압도하며 정보 흐름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디지털 시대의 ‘주파수 정치’와 연결된다.

52) 오디오 상상계는, 그것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점령하는 상황을 그려내는 시뮬레이션의 형태를 띠든, 혹은 들판즈와 가타리가 혼돈의 힘을 이용하는 영토 구성 방식으로 제시한 리토르넬로 개념의 형태를 띠든, “전염이라는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Goodman, 앞의 책, p.19.

53) 정동은 한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들 사이에서’ 생산되는 특성을 지닌다. 정동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결과물이다. 감정은 개별 주체를 넘어서 확산되며,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분열선과 정동의 집합적 구조를 형성한다.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023, 295쪽.

극우 유튜브 채널은 콘텐츠 선정, 편집, 플랫폼 활용 전략 등을 총동원하여 청취 경험을 설계한다. 특정 정치 세력과의 공생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이 디지털 배치는 지지층을 효과적으로 결집했다. 또한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했다. 오프라인 광장의 음향전과 교호(交互)하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청각적 배치’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분석은 2020년대 청각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5. 청각 정치학의 지평에서 질문하기

12·3 사태 이후 광장의 정치는 ‘소리’를 매개로 전개되었다. 이 연구는 국가 권력의 통제적 청각 배치와 시민들의 창의적 대항 배치가 격돌하는 ‘음향전(Sonic Warfare)’의 양상을 주목했다. 청각 정치학의 관점은, 이 음향적 충돌 자체가 사회적 의미와 권력관계를 생산하는 핵심 기제임을 보여준다.

광장에서 벌어진 음향적 경합은 참여자들을 고립된 개인에서 공동의 올림으로 연대하는 주체로 변화시켰다. 이들은 K팝 개사곡과 공유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대안적 미래를 그리는 ‘소닉 핵선’을 창조했다. 나아가 즉흥성과 이동성으로 고정된 질서에 균열을 가했다. 음향을 매개로 한 저항의 실천은 민주주의 수호와 소수자 연대라는 시대정신을 담지하는 새로운 ‘소닉 페르소나’를 탄생시켰다. 음향의 역할은 배경 소음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정치 주체를 생성하는 능동적인 힘으로 작동했다.

광장을 넘어선 소리의 정치에 관한 질문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기술 발전은 공적 공간의 소리 정치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광장에서 촉발된 디지털 음향전의 양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대 및 갈등 구조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이상의 물음은 격변기 한국 사회의 녹록지 않은 현실과 복잡하게 얹혀 있다. 내란에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국면은 새로운 헌정 질서로 나아가는 장기 투쟁의 서막이기에, 광장이 드러낸 소리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성찰은 한국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광장에서 태동한 소닉 페르소나와 소닉 픽션을 일상과 제도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광장의 음향전 이상으로 승패를 낙관하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권력이 소리를 이용해 공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체를 길들이는 통제 기술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이에 맞서는 저항 역시 대량 음향을 조직하고 새로운 주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권력과 저항의 대결 구도 속에서 청각 정치학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소리가 영토를 구축하고 정동을 조율하는 미시적 권리 작용을 정밀하게 해독하는 ‘감각 비평(sensory critique)’의 역량을 벼리는 것이다. 음향에 대한 주권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능력이야말로 다가올 시대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근본적인 힘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 흥, 「지난 계절의 일기」, 『문학동네』 제122호, 문학동네, 2025.
- 김멜라, 「계엄파편」, 『문학과사회 하이픈』 봄호, 문학과지성사, 2025.
- 김복희, 「산통 깨기(記)」, 『문학과사회 하이픈』 봄호, 문학과지성사, 2025.
- 김이설, 「2024년 12월, 2025년 1월의 메모」, 『문학과사회 하이픈』 봄호, 문학과지성사, 2025.
- 모순택, 「달그림자 쫓는 느낌」,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 서고운,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문학동네』 제122호, 문학동네, 2025.
- 황정은, 「日記」, 『문학과사회 하이픈』 봄호, 문학과지성사, 2025.
- Fred Moten, *The Universal Machine*, Duke University Press, 2018.
- Holger Schulze, *The Sonic Fiction*, Bloomsbury Academic, 2020.
- Holger Schulze, *The Sonic Persona : An Anthropology of Sound*, Bloomsbury Academic, 2018.
- R. Murray Schafer,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Destiny Books, 1994.
- Steve Goodman, *Sonic Warfare: Sound, Affect, and the Ecology of Fear*, MIT, 2010.

### 2. 논문과 단행본

- 군지 폐기오 유키오, 「무리는 생각한다」, 박철온 역, 글향아리, 2018.
- 권경률, <'다시 만난 세계' 폐창과 응원봉으로 바꾸는 세상 : MZ가 발의하고 중장년이 가결하는 'K팝 민주주의'>, 『월간중앙』, 중앙일보, 2025.2.
- 권창규, 「무지개 색깔 동지들의 기억 투쟁」,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33-149쪽.
- 머레이 쉐퍼, 『사운드스케이프 - 세계의 조율』, 한명호·오양기 역, 그물코, 2008.
- 사라 아메드, 『감정의 문화정치』, 시우 역, 오월의봄, 2023.

- 손호철,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반복과 차이」, 『현대정치연구』 제10권 2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7, 77-97쪽.
- 신진욱,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의 진자 운동, 1987-2017 : 포스트권위주의와 문재의 동시성을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제3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55-100쪽.
- 이동연, 「촛불의 리듬, 광장의 문화역동 :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4권 1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91-117쪽.
- 이원재, 「다시 만난 ‘화염병’과 ‘응원봉’의 세계 : 이제 ‘문화 사회’를 준비하자!」, 『황해문화』 제126호, 새얼문화재단, 2025, 407-412쪽.
- 정고은, 「‘휑결’과 ‘말벌’ : 초대장에 응답·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16-132쪽.
- 정성조, 「퀴어 민주주의를 위하여」,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50-169쪽.
- 정원옥·전주희·정정훈·조윤희, 「12·3 내란 이후 광장정치의 부상하는 주체와 그 함의」,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4-16쪽.
- 천정환, 「거리정치를 통해 본 내란 이후 ‘극우회’의 문화정치적 자원과 정동적 동력」, 『역사비평』 제151호, 역사비평사, 2025, 136-177쪽.
- 최성용, 「여순에서 남태령까지, 손가락총의 폭력을 넘어」, 『문화/과학』 제121호, 문화과학사, 2025, 170-191쪽.
- Brandon LaBelle, *Acoustic Territories*, Continuum, 2010.
- Douglas Kahn and William R. Macauley, “On the Aelectrosonic and Transperception”, *Journal of Sonic Studies* 8, 2014.
- Douglas Kahn, *Wireless Imagination: Sound, Radio, and the Avant-Garde*, MIT Press, 1992.

## Abstract

### Sonic Politics after December 3 - Exploring the Sounds of the Square and Theoretical Horizon

Lim, Tae-Hun(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onic practices in public assembly spaces from the perspective of sonic politics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During this period, the public square functioned as a field of affective solidarity, mediated by sound and vibration, where participants transitioned into political subjects. This research analyzes how sonic elements such as choruses, chants, and shouts constituted the conditions for political subjectification. It specifically focuses on clarifying the organization of sound,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affect,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new subjects.

The theoretical foundation is reconstructed through a critical adaptation of sound theories from R. Murray Schafer, Steve Goodman, Holger Schulze, and Kodwo Eshun. By applying these preceding theories to the specific Korean context, it presen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rotest culture after the December 3rd incident. The analysis utilizes five key concepts: 'soundscape,' 'sonic warfare,' 'auditory assemblage,' 'sonic fiction,' and 'sonic persona.' These concepts provide a framework for comprehensively investigating how the sound environment of assembly spaces functions as a condition for affective political practice.

The tension between state power and citizens took the form of a multi-layered sonic warfare. The collective resonance formed in the square established a political presence that transcended individual subjects. The shared rhythms and vibrations inscribed on the participants' bodies became the foundation for forging an intense solidarity. This achiev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engendered a new

form of affective participation and an ethics of enunciation, distinct from the 2016-2017 candlelight vigils. State power attempted to maintain social order through auditory assemblages such as warning broadcasts and noise regulations. In contrast, citizens countered that control by forming a counter-assemblage with their own voices and songs.

(Keywords: Sonic Politics, December 3 Incident, Protest Soundscape, Sonic Persona, Sonic Warfare, Auditory assemblage,, Sonic Fiction, Affect, Collective Subjectivity)

논문투고일 : 2025년 5월 6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2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0일

제재확정일 : 2025년 6월 16일